그 사람 지금은

(21) 민족의학자 장두석

"재판은 우리 아닌 전두환이 받아야지"

"개인 마다 이념과 종파가 다를지라도 국민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사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가가 바로 서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단군 사상만이 국민을 결집하고 나라의 중심을 세울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한복만을 입고 다니는 장두석(70)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이사장은 개인의 건강은 물론 사회의 정신건강까지도 오로지 '우리' 방식으로 치요할 것을 고집한다.

'자연건강법의 권위자', '민족의학계의 이론적·실천적 지도자', '민족생활의학자' 등 다양한 수식어가 따라 붙는 장 이사장은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전국에 산재한 단군성전을 둘러봤다.

"모르는 시민들이 많지만 광주 상무지구 5·18공원 여의산 정상에 단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성전의 규모가 2평이 채 못 됩니다. 중국은 연일 동북공정으로 우리의 역사를 왜곡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우리의 국조와 역사의 중요성을 잊고 있습니다"

81년 5·18 공판 때 최후 진술

지역사회 義人으로 손꼽혀

지난 해 개철절 광주에서는 처음으로 단성전에서 개천절 행사를 치른 장 이사장의 올해 소망은 협소한 단성전을 증축하는 것이다.

지난 해 개천절행사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았던 장 이사장은 2004년 조선시대 이후 최초로 백두산에서 천제를 올려 국내외에 화제가 됐다.

이후 한라산과 지리산 등 전국 명산을 돌며 통일기원 천제를 올렸다. 올 개천절에는 서울 남산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천제를 올리는 것이 그의 목표다.

장 이사장의 단군숭배 사상은 곧바로 겨레사랑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장 이사장은 지난 1996년 뜻있는 인사들과 함께 '겨레 하나되기 운동본부'를 결성, 북녘 동포를 돕고 있다. 평양 능라도 제2탁아소와 무진 유치원에 각각 빵 공장과 두유 기계를 설치, 어린이들이 굶지 않고 빵과 두유를 먹을 수 있도록 모금한 성금을 10년째 보내주고 있다.

민족 사상과 생활을 좇아 평생을 살아온 그의 진 면목은 민족생활 의학 분야에서 그대로 나타난다.

"의사나 화학약품에 의존해서는 절대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환자의 몸은 자신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 것을 먹고 생활방식을 고쳐야만 병이 치유됩니다"

1938년 화순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 한국전쟁 때 심한 간질환과 폐수종 등으로 사경을 헤매다 단신으로 입산, 민간요법을 통해 자신의 병을 완치하면서 민족의학에 눈을 뜨게 됐다.

이후 그는 전통의학과 민간요법, 동서고금의 의학서적들을 섭렵하면서 자연과 생활에 기초를 둔 민족의학의 체계를 세우는 데 전념하고 있다.

약 력

- ▲1938년 화순 출생
-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이사장
- ▲민족의학연구회 회장
- ▲5·18기념재단 이사
- ▲통일연대 공동대표
- ▲개천절 행사위원회 집행위원장

그는 1975년부터 제1회 '민족생활학교 단식·생식 수련회'를 시작해 최근까지 124회 수련회를 마쳤다.

수련회는 1년에 광주에서 4~5차례, 전국 22개 민족생활관을 순회하며 5~6차례를 열고 있다.

이 수련회는 암환자 등 불치병 환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지면서 의사와 약사, 간호사 등 의료 종사자가 참가하는 것은 물론 타 지역의 환자들도 상당수가 찾고 있다. 수련회의 정원은 100~150명 정도인데, 이중 어린이 환자들이 무려 30명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수련회는 장 이사장을 비롯해 민족생활의학과 관련된 강사 45명과 중환자를 돌보는 자원봉사자 15명 등 총 60명이 꾸려나가기 때문에 수련생의 수가 제한된다.

장 이사장으로부터 수련을 받은 사람은 지금까지 3만5천명에 달하며, 제자만도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렵다. 특히 제자 중에는 인간문화재만 해도 30명에 달할 정도다.

광주 광산구 유스호스텔에서 제93기 민족생활학교 단식·생식 수련회를 마친 뒤, 수련생과 함께 기념촬영을 한 장두석(앞줄 왼쪽에서 다섯번째) 이사장.

이와 함께 민족의학에 대한 각종 칼럼을 20여년 동안 800회 가량 게재했으며, 올해부터는 계간 형태로 발간되는 감사원 감사자료의 민족의학 칼럼을 쓰고 있다.

그는 사람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병들고, 가난하고, 더 빨리 죽는다는 지론을 갖고 있다. 그 무지를 깨뜨릴 수 있는 것이 '양서(良書)'라고 생각한 그는 1978년 옛 YWCA건물에 '양서조합'을 만들어 수많은 도서를 비치, 원하는 이들에게 회원제로 대여해줬다.

이후 농민운동과 사회인권운동 차원에서 앰네스티 운동에 참여하면서 5·18에도 가담하게 된다.

기인에 가까운 행적을 보이는 그는 지역에서는 몇 안 되는 의인(義人)으로도 존경을 받고 있다.

96년 '겨레 하나되기 운동본부' 결성

북한 탁아소 등에 성금보내기 앞장

1980년 5·18 관련자로 검거돼 보안대 지하실에서 문병란(조선대) 교수 등과 함께 신문을 받던 일화는 지금까지도 5·18 피해자들 사이에 유명하다.

군인들의 고문이 시작되자 "문 선생님은 때리지 마시오. 내가 더 건강하고 몸도 좋으니, 차라리 나를 때리시오. 이 사람은 선비 같은 사람이라 몸도 약하고, 잘못이 없으니 나를 때리시오"라며 수사관에게 애원했다고 한다. 대신 자신은 다른 사람들 몫까지 뭇매를 맞아야 했다.

1981년 5·18 공판중 그의 피의자 최후진술도 당시로서는 어느 누구도 흉내 내기 어려운 의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자신의 최후 진술 차례가 되자 "내가 재판을 받을 이유는 하나도 없소. 우리가 재판을 받을 것이 아니라 개두환(전두환)이가 받아야지…"라며 1시간 40분 동안 5·18의 정당성을 역설해 재판이 중단되기도 했다. 서슬이 시퍼렇던 군사정권 시절에 전설(?) 같은 얘기가 아닐 수 없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전라도 역사이야기 -장수향교

정유재란때 소실 위기 면해

정경손 기개에 왜군들 탄복

무진장 여객 버스가 섬진강과 금강의 분수계인 수분령을 넘는다. 북쪽 옴팍지(盆地)가 장수읍터다. 백제 때 우평(雨坪), 신라 때 고택(高澤), 고려 때 장천(長川)이다가 조선 태종조에 장수(長水)가 되었다. 다같이 '높은 산과 깊은 골'이란 의미다.

장수 진산(鎭山)은 동쪽 영취산(장안산 1237m)이다. 읍내로 힘차게 뻗어 내린 능선은 관주(두)산에 멈춰 주산을 이룬다. 개울 건너 남산이 마주보고 있어 천년행화지로 알려졌다.

군청, 초등학교와 함께 관주산 기슭에 장수향교가 있다. 1407(태종 7년)년 선창리에 건립됐던 것을 1441(세종 23년)년 현 위치로 이설했다. 현재까지 창건 당시의 건물 양식이 크게 훼손되지 않은 향교다.

하마비에서 접어들면 문화재자료 제38호인 성충복정경손수명비(聖忠僕丁敬孫竪名碑)가 세워져 있다. 정유재란 때 왜군이 향교를 불태우려했다. 원노 정경손은 "이곳은 성전이니 누구도 범할 수 없다. 침범하려거든 나를 죽이고 가라"며 항거했다. 기개에 탄복한 왜군이 오히려 "이 곳은 성전이니 침범하지 말라(本聖域勿犯)"라는 신표를 써줘, 병화를 면했다.

보물 제272호 장수향교의 대성전.

보물 제272호로 지정된 대성전은 주심포양식이나, 다포계 형태가 가미된 구조다. 앞 명륜당 사이에 동재 경성재와 서재 진덕재가 있어 나주향교와 같은 전학후묘(前學後廟) 배치다.

남산 의암루에 올라 남쪽을 바라보니 장원지(長源池)가 역광에 눈부시다. 호수공원 두산 골에 접어드니 논개사당인 의암사(義岩祠)가 있다. 1955년 군민 성금으로 남산에 건립했다가 1974년 옮겼다. 경내는 1846년 세운 촉석의기논개생장향수명비(矗石義妓論介生長鄕竪名碑)도 있다.

논개(1574~1593)는 장계면 대곡리 주촌마을의 주달문과 밀양박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갑술년 갑술월 갑술일 술시 곧 개해 개달 개날 개시 출생이므로 논개라 지었다고 한다. 14세 때 글을 가르쳐주던 부친이 병사한 뒤, 어려움을 겪다가 장수현감으로 부임한 최경회(1532~1593)와 연을 맺고, 진주성에서 순절한다.

주촌은 범바위골 주달문이 서당을 열면서 동네가 형성됐다고 한다. 1987년 저수지축조 때 물에 잠긴 곳으로 육십령과 대전-통영간고속국도가 북쪽으로 지난다. 2000년 9월 대곡호 남쪽 2만여 평에 '주논개 생가지'가 꾸며졌다.

장수군은 삼절(三節)로 논개, 정경손, 타루비(墮淚碑)의 주인공 순의리 백씨를 기린다. 모두 평민 '님'들이다. 요즘 장수하면 사과가 유명하다. 고랭지 장점이 특화되어 당도가 높고, 육질이 단단하며, 색도 좋다. 500여 농가, 770ha에서 1만4천 톤을 생산하고 있다. 읍내오일장(5·10일)이면 향신초 '고수'도 나온다.

/김경수(사)향토문화진흥원장